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박사과정 지 은 아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박 선 경

- •
- I. 서 론
- II. 섬유 의 표현기법
- III. 한국복식의 이미지
- IV. 작품 및 설명
- V. 결 론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섬유 기법으로서 패치워크, 타피스트리, 니팅, 크로세, 바스켓, 천연 염색 등이 가지는 조형적 특성과 예술성을 한국 전통 복식에 접목하여 새로운 한국적 이미지를 구성하고 나아가 한국 복식의 현대적인 디자인 방향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 첫째, 각 섬유 기법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제작 방법들을 살펴 보았다.
- 둘째, 한국 복식의 디자인 요소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적인 이미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 재해석 하여 본 작품 제작에 있어서 기존의 한복 디자인과 차별성을 두었다.
- 셋째, 각 기법들의 기본적인 구성과 구성방법에 의한 조형성을 현대 복식에 표현된 섬유 기법들과 현대의상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디자인 요소를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 이러한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작품 제작을 통하여 얻은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전통적인 섬유 기법들의 수공예적인 특징은 현대인들의 느낌에 대한 갈망과 인간성 회복, 자연과 과거로의 회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법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 둘째, 또한 이러한 수공예적인 특징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단위 구성과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는 유연함이 있어 작가의 예술적 직감을 마음껏 표출시킬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단위 형태 내에 여러 가지 기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독특한 재질감을 표현함으로써 의상 전체의 표면 특성에 독특함과 다양성을 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의상의 예술적 표현 증대와 고 부가가치, 고 창출을 위한 실용화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섬유 기법과 한국 전통 복식의 접목에 의한 디자인 연구가 그 조형성과 예술적 가치에 의해 고 부가가치를 지닌 복식 디자인의 중요한 기법으로 현대 한국 복식 디자인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I.

현대의상은 기술문명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자발성’, ‘즉흥성’, ‘독창성’, ‘재료의 재질감’과 결합된 자유로운 표현 그리고 착용자에 의한 연출로 인해 다양하게 변화되는 특징 등을 의상의 주요한 테마로 자리잡게 하였고, 이로 인해 다양한 섬유 표현 기법 즉, 바틱(Batik), 엮기(Plaiting), 바구니 기법(Basketry), 펠팅(Felting) 등의 현대적인 표현 기법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기법인 퀼팅(Quilting), 니팅(Knitting), 크로세(Crochet), 타피스트리(Tapestry), 천연 염색 등이 더욱 각광을 받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전통복식 디자인 속에 나타난 한국적 미의 조형적 특징을 규명하고, 각 섬유 기법들의 역사적 배경, 기법의 종류, 현대 디자이너들이 추구하고 있는 섬유를 통한 표현 양상과 제작의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전통 복식에 내재된 한국적 문화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섬유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특별히 기계를 쓰지 않고 수작업으로 접근하여 얻을 수 있는 아트웨어를 실용화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II.

다양한 섬유기법은 현대의상을 통해 표현되어지고 있으며 창조적인 오프뛰프르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각각의 기법을 알아보고 이를 현대의상에 접목시켜 본다.

1. (tapestry)

고정된 프레임에 가늘고 튼튼한 날실을 걸고 질감이 풍부한 씨실로 날실을 덮으면서 작가가 의

도하는 그림을 짜나가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직기법은 단순한 평직에 의해 다양한 표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료의 다각적인 선택과 색사의 능숙한 혼합 사용이 필요하다.

2. (Patchwork)

패치워크는 여러 개의 조각 형질을 맞붙이거나 덧붙인 다음 누빈 것으로 뚫어지거나 헤어진 의류를 수선하기 위하여 형질 조각을 이어 붙이는 “깎는 행위(Patching)”가 발전하여 이루어진 기법이다.

우리나라 패치워크의 대표적인 예로는 색동 저고리, 잣섶, 조각 보(褙)를 들 수 있다.

- 종류 -

- 어플리케 패치워크- 밑받침 천 위에 대조되는 색상의 천이나, 원하는 형태의 다른 천 조각을 덧붙여 장식적인 효과로 사용되는 기법으로 라틴어의 “Applicare”에서 나온 “접는다, 고정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있다.
- 몰라 패치워크- 여러 개의 천을 한데 모아 포갠 다음 디자인된 패턴에 따라 가위로 오려가면서 윗 천을 아래 천에 부착시키거나 다른 천을 덧붙이는 방법이다.
- 아미시 패치워크- 못 쓰게 된 천을 이용해 조형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표현된 방법이기 때문에 몇 가지 한정된 색채만이 사용되고있다. <그림 1>은 일률적인 작은 사각형을 그래픽적인 칼라와 원단의 울을 이용한 텍스처어로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아미시 패치워크 특유의 강한 느낌을 나타내었다.
- 크레이지 패치워크- 장식적인 효과보다는 작은 천을 연결하여 큰 천을 만드는 검소한 생활의 상징으로써 사용된 방법이다. <그림 2>는 서로 다른 소재를 사선 방향으로 패치워크하여 활동적이고 율동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데님소재로 포인트를 주어 모직의 따뜻함과 데님의 차가움이 대조를 이룬다. 이렇듯 천 조각을 선과 면으로 표현함으로써 크레이지 패치워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3. (Crochet)

크로세는 사슬뜨기를 기본으로 짧은뜨기, 중간 긴뜨기, 한길 긴뜨기, 두길 긴뜨기, 세길 긴뜨기가 있으며 모티브 뜨기 등이 있다.

소재에 따른 재질감 표현력이 풍부하고 텍스처의 독특함을 잘 표현해 주며 손으로 작업해야 하는 수공예적인 특징 때문에 오피트뜨르와 예술 의상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그림 5>는 일정한 꽃 문양을 싱글 크로세 기법의 레이스 뜨기로 여성스럽게 표현하였으며, 레이스 뜨기는 가는 실로 짤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니팅과 달리 차가워 보이는 면이 있다.

4. (Knitting)

knit는 손에 의하여 짜여진 실이라는 뜻으로 경사 또는 위사 중 어느 하나의 구성 요소만으로 엮어 뜨는 것이다. 니트의 일반적인 특성은 신축성, 드레이프성, 다공성, 유연성, 성형성 등이 좋은 것이며 섬유간 합기성이 커서 보온성이 있는 동시에 통풍성도 좋다. 니팅 기법은 다양한 실과 다른 굵기의 바늘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창의적이 될 수 있으며, 니팅의 부피감은 그 자체가 조형적이며 입체적이다. <그림 7>은 처음에는 가늘게 시작하여 점차로 굵게 확대시켜 바늘의 굵기에 따른 변화를 주어 지루함을 없애고 독특한 재질감을 나타내었다.

5. (Basketry)

바스켓 공예는 바구니를 제작하는 기법으로 연한 가지나 풀, 버들, 대나무, 물풀, 골풀 같은 유연성 있는 식물 섬유나 플라스틱 기타 합성 물질 등을 재료로 한다.

종류로는 루핑(looping)기법: 고리만들기, 노팅(knotting)기법: 매듭, 플레이팅(plaiting)기법: 엮기, 코일링(coiling)기법: 감기, 위빙(weaving)기법: 짜기, 트와이닝(twining)기법: 꼬아 엮기가 있다.

<그림 9>는 플레이팅(plaiting)기법의 조형성이 인체의 곡선과 결합되어 부드럽고 여성스럽게 표

섬유의 표현기법

패치워크 기법			
	<그림 1>	<그림 2>	<그림 3>
크로세 기법			
	<그림 4>	<그림 5>	<그림 6>
니팅 기법			
	<그림 7>	<그림 8>	
바스켓 기법			
	<그림 9>	<그림 10>	

현되었으며, <그림 10>은 다양한 모양의 루핑(looping)기법과 플레이팅(plaiting)기법을 통하여 인체의 아름다운 곡선을 형상화하였다.

III.

1.

1) 형태적인 면

(1) 저고리

저고리의 형태적 특징은 도련, 배래, 깃, 그리고 쏘 등에 나타나는 ‘선’으로 집약할 수 있으며 깃은 동정과 함께 한국 복식에서 유일하게 직선을 사선으로 표현한 것이며 배래의 곡선은 한국 복식에서 곡선미로 대표되기도 하며 저고리의 여밈 역할을 하는 옷고름은 인체에서 분리된 유일한 장식으로 의복 전체에 주는 균형과 파격은 한국복식에서 유일한 장식적인 의미를 갖는다.

(2) 치마

치마는 허리띠와 한 장의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마 속에 여러 겹 속바지와 무지기 치마를 착용함으로써 안정감과 볼륨감을 느끼게 한다.

(3) 바지

바지 역시 허리, 마루폭, 큰 사폭, 작은 사폭의 직선과 사선이 사용되어 구성되지만 인체에 입혀졌을 때에는 허리띠와 대넒으로 허리 부위와 발목에 주름이 잡혀 고정되면서 풍성한 형태감을 통해 완만하고 자연스런 곡선적 윤곽을 나타낸다.

이처럼 한국복식은 자연스럽고 유연한 감각적인 직선과 반월형에 가까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이는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 속에서 안락하고, 평안하게 생활하는 가운데 나타난 우리 민족의 조형적 경험의 산물인 것이다.

2) 색채적인 면

한국 복식과 같이 실루엣의 변화가 적은 의복에서 색채가 지니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한복의 색채 관념은 사상적 관념이었던 유교 철학을 바탕으로 음양 오행 사상에 따른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을 중심으로 백색은 일반 민중들의 의복색으로 가장 선호되었으며 적색은사회 권력과 정신력을 표현하는 동시에 상류 계급을 가리키는 색이었으며 청색은 청청

한 생명의 표현으로서 재화 초복에 이용되었다. 이외에 기쁨, 즐거움의 표현으로 색동과 고귀하고 장엄한 색으로 자색이 사용되었다.

3) 소재적인 면

한국 복식에서는 곱고 정교한 표현성을 갖는 소재가 애호되었는가 하면 거칠고 소박한 표현성을 가진 소재가 동시에 사용되었다. 대표적으로 삼베, 모시, 명주, 노방, 면등이 있다.

삼베는 거칠면서 소박한 표현성을 갖는 소재로 주로 서민들에게 애용되었으며 곱고 정교한 모시는 유연하며 단아한 아름다움과 넓게 비치는 선정적인 느낌을 주어 우리 민족의 미적 정서를 잘 표현해주는 소재이며 명주 또한 유연하여 비단이지만 모시인 듯, 아니면 얇은 무명인 듯하다.

노방은 가볍고 시원하여 착용감이 좋으며, 견섬유 특유의 우아한 윤택으로 품위가 있으며 자연 친화적인 면은 특유의 편안하고 실용적인 소박함으로 서민들에게 일상복으로 사용되었다.

2.

현대사회가 고도의 산업 사회의 발달과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국제화, 보편화, 단일화되어감에 따라 동, 서양의 활발한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각 문화권내의 독특하고 토속적인 민족 고유의 스타일이 국제화된 현대 의상의 큰 모티브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의상 디자이너들도 최근 세계 무대에 진출하면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역사, 풍토성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자인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그림 11>에서는 유사색의 은은함을 소재와 잘 매치 시켰으며 속치마의 깊게 파진 목 라인을 겹으로 표출 시켜 표현하였다. <그림 12>는 한복의 특징 중 하나인 바지 허리에 고무줄을 넣어 편안함을 주었다. 주로 치마에 적용되었던 실크 소재를 남자 바지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그림 13>은 그라데이션으로 염색한 노방의 은은한 광택소재가 주름지어지면서 two tone으로 표현되었다. <그림 14>는 우리고유의 조각보형태를 조형성을 살려 면 분할하여 단조로운 색상에 포인트를 주었다. 소재도 면을 사용하여 서민적인 소박함을 색상과 패치워크 기법의 조화로 ‘미(美)’로서 승화시켰으며 색상은 우리고유복식에서 많이 보여지는 녹의홍상(錄衣紅裳), 녹의청상(錄衣靑裳)의 보색대비를 현대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5>는 한국복식의 두루마기 형태를 조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우리 고유복식에서 많이 애용되었던 청(靑)색을 사용하였으며 꽃 문양으로 화려하게 표현하였으며 광택이 있는 실크소재의 사용으로 고급스러움을 주었다. <그림 16>에서 보여지듯이 실크 소재 하나만으로도 우리 고유복식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차분한 색상의 니트로 현대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	<그림 16>

IV.

1.

최근 국내의 유명 디자이너들에게서 한복의 특징을 살려 이를 현대의상에 접목시켜 디자인한 예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유의 독특한 복식적인 이미지를 섬유·표현기법으로 응용하여 표현하고 있는 경우는 미흡한 상태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시도해 보았다.

본 연구의 작품 제작은 앞에서 설명한 섬유기법 즉, 타피스트리, 패치워크, 니팅, 크로세, 바스켓기법을 한국적인 소재에 적용시켜 이를 천연 염색하여 우리고유의 색채를 표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한국적인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작품에 임하였다. 편물을 이용한 섬유기법은 신축성이 좋아 활동성이 높으므로 한복의 저고리 같이 활동하기가 불편한 옷에 응용하면 그 신축성에 의해 저고리 본래의 활동하기에 불편함을 줄일 수 있으며 형태 변형의 자유로움과 실의 재질감을 살리면서 독특한 미를 표현할 수 있다.

소재로는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모시, 삼베, 노방, 견사, 명주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소재는 천연 염색을 하였을 때 제 빛을 발하며, 매번 염색 할 때마다 그 색상이 조금씩 달리 표현되는 천연 염색은 얼마든지 독창적이어서 세계적인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작품

제작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2.

1) 디자인 및 기법

작품제작은 한국 복식적인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한복을 형태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아이템별로 한복 고유의 특징을 살리면서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접목시켜 한복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기에 적당한 기법들을 응용시도 하였다.

바지와 치마는 직접 손바느질로 패치워크와 누비기를 하여 손끝의 정성을 소박하게 표현하였으며 마고자와 저고리는 다양한 색상의 실과 천연소재로 니팅, 바스켓, 크로세 기법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편안함을 주었다. 술과 배자는 화려한 원색의 실을 타피스트리와 패치워크 기법으로 색동의 즐거움을 표현하였다.

2) 색상

자연의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색상들을 우리고유의 전통색채 4가지로 크게 분류하여 천연염색을 통해 표현하였다.

(1) 청(靑)색 계열

시원한 바다가 연상되는 청색 계열속의 쪽빛은 보는 이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쪽빛은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색으로 여겼으며 풍수적으로 흥한다 하여 길복으로 쪽빛을 염색하여 사용하였다.

거친 질감보다는 부드러운 소재와 어울리며 purple, violet 등의 색상과 매치가 잘되며 (작품 1)에서는 청색에 분홍색을 포인트로 주어 깔끔하게 표현하였다. 술은 다양한 청색계열의 색실을 타피스트리 기법으로 짜서 단순한 색상에 화려함을 주었다. 천연염색 시 얼룩이 잘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승화시켰다.

(2) 자색 계열

우아한 자태를 드러내는 자색은 고귀하고 신비한 색상이다. 쉽게 낼 수 있는 색이 아니므로 예부터 귀하게 사용되었다. 황색, 청색 등 명도와 채도를 잘 맞추면 어떤 색상과도 어울리며 차분히 가라앉혀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소재로는 고급스러운 노방이나 명주등에 어울린다. (작품 2)에서 치마를 여러가지 자색으로 천연염색 하였으며 저고리의 두꺼운 질감과 매치 시켜 자색의 부드러움을 한층 강화하였다.

(3) 색동 계열

화려하고 기쁨을 주는 원색은 한국 복식에서 어린이들의 색동옷에서 주로 볼 수 있듯이 밝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색상이다. 원색끼리의 조화는 색채감정에 따라 배열함으로써 하나의 개성 있는 색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색상 배합이다.

우리나라 조각보에서 보면 다양한 원색의 배열은 일정한 패턴을 벗어나 자유로운 리듬에 의해 결합된 것을 알 수 있다.

(작품 3, 4)의 치마와 배자에서 천 조각을 이어 붙일 때 천과 동일한 색상의 실을 사용하지 않고 천보다 두드러지는 색실을 써서 바느질 땀을 선명하게 하였다.

(4) 황(黃)색 계열

가을을 연상케 하며 나무, 흙 등의 자연 그대로의 느낌이다. 우리나라 전통복식에서 나무껍질 등의 천연소재를 사용하여 주로 서민들의 의복으로 입었던 소박한 우리정서와 어울리는 색상이다. 소색이나 카키, 오렌지색 등과 어울리며 소재로는 삼베나 모시, 사이잘 삼 등의 천연소재로 치자, 황백, 소목 등의 천연염색을 하면 brown계열의 토속적인 느낌이 그대로 살아난다. (작품 5)의 치마는 모시를 천연염색 하여 상의의 다른 질감의 황색과 매치 시켜 다양한 느낌으로 표현하였으며 (작품 6)은 천연소재인 사이잘 삼을 염색하여 거칠게 표현하였고, 바지는 황색의 서민적인 느낌을 패치워크기법을 사용하여 소박한 느낌을 강조하였다.

3.

<작품 1>

소 재 : 실(면사, 모사, 날개사, 모헤아, 특수사 등), 모시, 명주

기 법 : 타피스트리, 패치워크, 천연염색(쪽과 포도)

구 성 : 솔 & 치마 & 바지

이미지 : 옛날 어린이들이 쪽두리를 쓰고 속바지가 보이는 짧은 치마를 입고 춤을 추는 모습을 담았다.

<작품 2>

소 재 : 실(마사), 노방

기 법 : 니팅, 패치워크, 천연염색(자초, 소목)

구 성 : 저고리 & 치마

이미지 : 조선시대 검기무복(劍器舞服)의 이미지를 소박하면서도 차분한 색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1>



<작품 2>

<작품 3>

소 재 : 모시, 노방, 은사, 사이잘

기 법 : 패치워크, 염색, 타피스트리

구 성 : 솔 & 치마

이미지 : 한국 전통의 조각보 디자인을 모티브로 패치워크 기법을 통해 현대적인 이미지의 의상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3>



<작품 4>

<작품 4>

소 재 : 실(모사, 면사), 모직, 견, 솜

기 법 : 패치워크, 크로셰, 누빔

구 성 : 배자 & 치마

이미지 : 옛날 무사들이 입던 의상의 이미지를 다양한 섬유기법과 조각보의 형태를 응용하여 현대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5>



<작품 6>

<작품 5>

소 재 : 모시, 견, 실(모사)

기 법 : 패치워크, 크로셰, 천연염색(녹차, 커피, 계피, 양파등)

구 성 : 저고리 & 치마

이미지 : 전통소재와 색상을 사용하여 조형적이면서 실용적인 한국 복식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작품 6>

소 재 : 사이잘, 모시, 은사, 갑사

기 법 : 바스켓기법, 패치워크, 천연염색 (녹차, 커피, 계피, 양파)

구 성 : 저고리 & 바지

이미지 : 옛날 서민들의 소박한 복식의 이미지를 비대칭의 현대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V.

본 연구는 현대에 와서 의상을 조형 예술 표현의 매개체로 인식하려는 경향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수공예적 섬유 기법인 패치워크, 타피스트리, 니팅, 크로셰, 바스켓, 천연 염색 등을 고찰, 그 표현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섬유 기법이 가지는 조형적 특성과 예술성을 의상에 도입함과 동시에 한국 복식의 디자인적 요소를 분석, 재해석하여 현대 복식의 디자인 요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밝히고 섬유 기법들과의 접목으로 새로운 한국적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작품 제작을 통하여 얻은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과 기계 문명의 발달이 가져온 비인간화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 이즈음 전통적인 섬유 기법들의 수공예적인 특징은 현대인들의 느낌에 대한 갈망과 인간성 회복, 자연과 과거로의 회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법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또한 이러한 수공예적인 특징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단위 구성과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는 유연함이 있어 작가의 예술적 직감을 마음껏 표출시킬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형태별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독특한 재질감을 표현함으로써 의상 전체의 표면 특성에 독특함과 다양성을 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의상의 예술적 표현 증대와 고 부가가치, 고 창출을 위한 실용화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섬유기법은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수작업으로 작가의 의도와 감정 표현이 자유로운 오프피트르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기법이라 할지라도 소재나 염색방법의 차별화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었다. 천연염색은 한가지 재료로도 그때의 감정상태와 약간의 시간 차이에 의해서도 다른 색상이 나오므로 똑같이 색상을 내기가 어려웠으며 얼룩이 저서 깔끔하게 나오기가 힘이 들었지만 이를 장점으로 살리면 개성있는 색상의 작품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섬유표현기법만을 다루었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섬유표현기법에 대한 점진적인 연구가 계속 되어져야 할 것이다.

(접수: 2002년 2월 22일)

【 】

금기숙(1992). “한국 전통 복식미의 현대적 활용” [복식19호]

금기숙(1987).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영자(1992). 한국의 복식미 (서울: 민음사)

데이비드라우어(저) 이대일(역) (1990). 조형의 원리 (미진사)

- 라사라교육개발원(편)(1992). 니트디자인과 니팅(라사라)
- 백명자(1992). 한국의 전통 봉제 (서울: 교학연구사)
- 배준범(1992). 섬유예술로서의 Knitwork이 현대 미술의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청주대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번수(1989). 섬유예술 (서울: 도서출판 디자인하우스) (1996). 현대섬유미술
- 신영선(1991). 염색기법- 공예염색과 천연염 (서울: 교문사)
- 신정숙 역(1993). 피복 재료학 (서울: 경춘사)
- 서현경(1997). 한국 현대 타피스트리의 역사적 고찰.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태(1986). “한국인의 색채감각” [디자인6]
- 유선태(1995). 현대 섬유 예술의 이해 (서울: 미진사)
- 여상미(1997). 현대복식에 활용된 한국복식의 디자인요소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오영신(1985). 섬유예술의 새로운 방향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산업공예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혜주(1990). “실용의상과 미술의상” [월간 공예]
- 한연희(1999). 바스켓기법을 응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디자인학과 석사학위논문.
- 전명근(1997). 패치워크기법을 응용한 미술의상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세완(1992).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A Study on Image Design of Korean Dress Applying Fiber Techniques

The Graduate School of Kookmin University Major in Fashion Design **Jee eun-ah**

Kookmin University Fashion Design **Park sun keung**

These investigation has significant meaning in composing native image from Korean traditional dress with formative and artistic specificity which are in patchwork, tapestry, knitting, crochet, basketry, and so on as tradition fiber techniques and in suggesting the direction of nowadays design.

As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se investigating, First, we settle the accurate concept through each fiber techniques and investigate the making method.

The second, we have differences with existing Korean dress design in revaluating the concept of traditional image through design element.

The third, we suggest fundamental composition of each method and formativeness through fiber technique and tradition design element expressed in modern dress.

Here are the results of theoretical investigation and making work.

First, we reconfirm that handicraft features of tradition fiber technique have ability of satisfying the desire for slowdown, recovering humanity and recurrence to the nature.

The second, these handicraft features have endless potentiality of expressing artistic intuition all on wants that it have flexibility of changing unit composition and frame freely.

The third, we can add peculiar and variety to dress surfaces as express peculiar quality using complex techniques in unit form, and through it, we can confirm practical possibilities for much artistic expressions, much added value and much creation .

The forth, we reconfirm that developing our own traditional design including peculiar aesthetic sense is just acquiring universality and cosmopolitan sympathy.

At the end, after this investigation of grafting fiber technique into traditional dress, I wish we should rediscover and develop possibilities of added value fashion design by formative quality and artistic value.